**영화 ‘더 플랜’ 시청 후기 토론 보고서**

**<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3012002 교육학과 오정은

14011872 영어영문학과 안시은

16011909 영어영문학과 강영은

**Ⅰ. 문제점**

**1) 기계 맹신으로 인한 비판적 사고의 결여**

감정과 한정된 체력으로 인해 일을 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는 인간과 달리,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 한 한계 없이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오히려 인간이 아닌 기계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계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기계가 어떤 이유에서든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영화 ‘더 플랜’이 이러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기계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특정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것은 맞지만, 기계 역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도 있다. 기계의 한계를 경계하지 않고 기계 사용에 익숙해진 결과, 사람들은 기계의 수행 결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게 되었고 점점 더 부주의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부주의함은 영화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게 예측할 수 있다.

**2) 정보의 빈부격차로 인한 권력의 양극화 가능성**

**2-1) 보안 맹점**본 영화에서는 기계에 이에 대한 사회적 맹신이 오히려 보안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오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대형 포탈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잘 찾을 줄 아는 행동과,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는 플랫폼이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읽을 줄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중, 고등학생의 프로그래밍 수업을 학교에서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는 스마트폰으로 정보의 ‘접근성’조차 갖추지 못한 고령화 사회와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한 정보의 활용성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보안적인 부분에서의 취약점이나 허점을 파고들기가 더 수월해진다. 개인이 정보의 ‘접근성’만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완벽하게 짜여진 프로그램’ 이 실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정보의 활용성과 응용력을 갖춘 이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실행되도록 완벽하게 조작했을 수도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곧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정보량의 차이로 인한 양극화를 간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기계 부재 및 오류 발생 시 예상되는 혼란 가능성**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면 어느새 결국 기계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계란 어디까지나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배제해서는 안된다. 영화 ' 더 플랜 ' 속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정확히 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정상적인 투표지를 기계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적지 않은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표 참관인들은 기계의 능력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가 오작동하여 수행해야 할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인간의 모든 영역을 기계에 맡기려하고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계의 오류는 인간 생활에 갑작스러운 불편함을 넘어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Ⅱ. 극복방안**

현실적으로 모든 기계가 쓰이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기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개인이 흥미를 가지거나 개인의 삶과 관련된 지식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모든 분야를 통달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했듯이, 사람의 손을 먼저 거치고 기계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 혹은 기계의 일에 대해 어느 한 쪽에 절대적인 우위만을 두고 모든 것을 편중되게 맡기기보다 협업을 통해 병행하는 4찬 산업혁명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투표와 같이 사람의 기본권과 연관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전자투표제를 철회한 모습에서와 같이 가능한 컴퓨터의 사용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기계의 발달과 발맞추어 윤리 의식이 함양되어 해킹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교육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윤리 교육과 더불어 기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